



맘스터치, 거제 수해 현장에 버거 지원

맘스터치가 재해 현장의 봉사자들과 수재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맘스터치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자 지난 25일 지역 가맹점과 함께 버거와 음료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 진행했다. 거제시 가맹점 7곳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맘스터치



포스코스틸리온, 포항 노후주택 새단장

포스코스틸리온이 포항 지역 노후주택을 새단장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하우스' 4호점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두꺼비하우스는 노후주택을 전면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1월 1호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4곳이 완공됐다. /포스코스틸리온



BBQ, 적십자 봉사자와 치킨캠프 개최

대한적십자사와 협력을 이어온 제너시스BBQ 그룹이 체험형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온기를 더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이천시 치킨대학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치킨캠프'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캠프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봉사자 20명이 참여했다. /제너시스BBQ

정식품 '공공 PR 대상' 우수상

정식품이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행동을 친환경 실천으로 연결한 캠페인으로 공공 PR 분야에서 수상했다. 정식품은 '2026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민간 기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보임 및 전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이지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김유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송석섭

부음 ▲이정례(향년 86세)씨 별세, 오광헌(보람할렐루아탁구단 단장)씨 모친상 = 26일,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VIP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후 효원가족공원. 070-4538-3538.

제네시스, 'GV90' 세계무대 데뷔 외신 호평 잇따라

코치도어·한국적 디자인에 찬사
온돌 착안 실내공간 차별화 평가
포브스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

“제네시스가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포브스·Forbes)
제네시스의 첫 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이 글로벌 시장 공개 직후 전세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GV90'과 'GV90 네오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유력 매체들은 특히 B필러 없이 앞뒤 도어가 마주 보며 열리는 완전독립식 '네오론아치 게이트'와 콘셉트카를 그대로 구현한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트렌드는 “혁신적인 듀얼 모션 힌지와 히든 롤케이



제네시스 GV90 네오론.

지를 더해 고급 세단의 우아함과 현대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며, 카스캡스는 “양산 과정에서 사라지기 쉬운 코치 도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2열 승차 경험을 극대화했다”고 호평했다.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와 카 매거진 역시 “한국 달항아리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과 윈 페이스 MLA 램프가 완벽한 일체감을 이룬다”고 전했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도 주목 받았다.

미국 잘롭닉은 “현존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GV90 네오론의 실내를 능가하는 인테리어를 떠올리기 어렵다”며 차량 내부를 ‘프라이빗 아트 갤러리’에 비유했다.

오토 익스프레스와 카앤드라이버는 한국 온돌에서 착안한 복사열 우드 플로어와 180도 회전형 스위블 시트를 언급하며 “틀스로이스 컬러린 등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독특한 럭셔리리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SKT,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원 나선다

후원선수 8명 ‘팀 SKT 2026’ 출정
국민응원 태극기 친천선수촌에 전달

SK텔레콤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스포츠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SK텔레콤은 친천선수촌에서 ‘팀 SKT 2026’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SK텔레콤 후원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정식에는 펜싱, 역도, 수영 등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총 8명이 참석했다. 오상욱·도경동·송세라·전하영(펜싱), 박혜정(역도), 황선우(수영), 나마디 조엘진(육상),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국민의 열띤 응원에 최선을 경기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날 SK텔레콤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응원 문구로 빠빠히 채운 ‘국민응원 태극기’를 공개했다. 태극기는 권영상SK텔

레콤 커뮤니케이션지원실장이 ‘팀 SKT’와 ‘팀 코리아’ 선수단 전체의 필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김택수 친천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나고야로 향하는 ‘팀 SKT 팬 크리에이터’들도 출정식에 함께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생생한 순간들을 응원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아시안 게임 훈련 과정에서 펜싱 AI 전력분석 시스템을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SKT-FAN’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컴퓨터 비전 기술로 경기 직후 득실점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 편집해주고, 상대 선수의 전술·공격 패턴 등 강약점을 상세하게 분석해준다.

이를 통해 전력분석원의 반복적인 영상 분석 업무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을 고도화하고, 실전에서도 빠르게 전략을 조정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msjo@

르노 필랑트, 프랑스 대사 의전차 선정

올해 3월 출시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정숙성·안전성 갖춘 하이브리드 E-테크

르노코리아는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랑트 하이브리드 E-테크가 주한 프랑스 대사 공식차량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5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에 필랑트 스마트키를 직접 전달했다.

필랑트는 올해 3월 국내 출시된 플래그십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다. 세단과 SUV 장점을 결합한 디자인과 프리미엄 테크라운지 콘셉트의 넉넉한 실내, 첨단 편의 및 커넥티비티 사양을 모두 갖췄다. 전트림 기본 적용된 정숙한 주행 기술 및 안전 사양, 하이브리드 E*테크 파워트레인 등 외교 일정에 필요한 품격과 안정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라는 게 르노코리아 측 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왼쪽)와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이 지난 25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랑트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명이다.

베르투 대사는 “필랑트는 프랑스 기술의 우아함과 기술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며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의 성과와 잠재력을 담고 있으며 특히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출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 이종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영그룹

부영, 외국인 유학생 98명에 장학금

누적 장학생 46개국 2945명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약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서울 중구대 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재단의 누적 장학생은 46개국 2945명, 장학금은 116억원으로 늘었다.

이 화장이 교육·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낯선 환경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유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장학생들이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서경배과학재단, 신진 생명과학자 4명 선정

서경배과학재단이 한국 생명과학의 미래를 끌어갈 신진 연구자 발굴에 나섰다. 서경배과학재단은 ‘2026년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신진 과학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4인의 연구 분야는 뇌과학, 대사질

환, 면역학 등 미래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 과제들과 맞닿아 있다.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권정대 교수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회로 원리를 밝혀 조현병 및 환각 증상 치료의 길을 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